

믿음 주는 환자중심 병원

고대구로병원뉴스

발행인 은백린 발행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TEL 1577-9966 FAX 02-2626-2275 홈페이지 http://guro.kumc.or.kr 편집, 디자인 홍보팀 02-2626-2270 발행일 7월 21일 월간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병문안 안내

입원환자의 안전과 빠른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병문안 시간을 운영중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문안 시간

- 평일(1회) 18:00~20:00
- 주말/공휴일(2회) 10:00~12:00 / 18:00~20:00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

- 만2세 이하의 아동
- 감염성 질환자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설사, 구토, 복통의 급성 장관계 감염이 있는 경우)
-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 단체 방문

꽃, 화분,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동반 금지

감염예방수칙

- 병원 출입 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환자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한 변화 병문안 문화 개선 프로젝트 실시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은 환자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병문안 문화 개선 프로젝트란, 지난 2016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병문안 문화 개선 프로젝트의 핵심은 환자와 보호자, 면회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복과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 외 방문객의 내원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에 고대 구로병원은 본격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7월부터 면회 자체를 유도하고 방문객 통제가 가능한 자동문 설치와 방문객 일시 작성등을 실시했다.

입원 수속 시 환자는 바코드가 프린트된 인식표를 발급받고 등록된 보호자의 경우 따로 부여받은 출입증을 사용하여 각 병동 출입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병동별 출입 통제는 보다 효율적인 내원객 관리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출입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원객의 경우 정해진 병문안 시간에만 내원이 가능하다. 이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병문안으로 인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정 기료가 방해되는 것을 막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허용된 병문안 시간은 평일에는 1회, 주말 및 공휴일은 2회다. 평일은 18시~20시까지이며 주말은 10시~12시, 18시~20시까지이다.

내원하는 방문객들은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하며 병문안 시에는 병상에 비치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만 2세 이하의 아동이나 임산부,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들은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병문안에 제한을 둔다. 기침, 가래, 인후염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거나 설사, 구토, 복통과 같은 급성 장관계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이 제한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만남의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만남의 장소에서는 병원 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담소를 나눌 수 있다. 꽃, 화분, 음식물의 반입은 여전히 금하며 애완동물 동반도 금한다.

달라지는 병문안 문화,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도록 하자. 정해진 방문 시간을 준수하고 병문안 제한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다면 문자와 SNS, 영상통화를 이용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여 건강한 병원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자. 



어울려 사는 사회, 다채로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고대 구로병원

2015년 4월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총 184만 6049명입니다. 백 명 중 세 명은 외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랜 유교문화와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뿌리가 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어 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는 다른 피부색이라는 이유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사회적, 문화적 차별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고대 구로병원은 이런 인종 차별을 지양하고 하나 되어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1

Dr. 로제타홀 여사 기념 다문화 가정 위한 건강강좌 개최

고대 구로병원은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구로경찰서와 함께 Dr. 로제타홀 여사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의학 교육기관이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초석을 마련한 로제타 셔우드 홀 (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 한국명 허을(許乙))의 박애정신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는 구로지역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 여성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 등 의료취약 계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좌는 ▲ 자궁경부암(산부인과 홍진화 교수) ▲ 대시증후군(가정의학과 김진욱 교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강좌와 함께 해당 질환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02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 진료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 진행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웃과 함께 순회 진료, 최근에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산하 이주민의료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약 45명을 대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 진료'를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월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하 3개 병원(구로, 안암, 안산)과 현대차정몽구재단 간 체결한 의료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순회 진료 봉사활동이란 평소 병원을 찾기 힘든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기 위해 봉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순회 진료에서는 혈압, 혈당, 채혈 등의 기본 검사와 함께 골밀도 검사, 심전도, X-ray 촬영 등 다양한 검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구로병원 순회 진료 봉사단은 앞으로도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순회 진료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구로병원은 1983년 의료사각지대였던 구로동에 자리를 잡고 34년간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들을 섬김의정신으로 돌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대 구로병원의 민족과 박애 정신을 근간으로 삼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대학병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지역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사는 사회,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사회를 위해 고대 구로병원이 함께합니다.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국내 의료기기 개발 선도, 성공적인 상품화 이끌어

2015년 6월,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업체의 상품화를 돕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끌기 위해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의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이흥만 센터장을 필두로 하여 지난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과 전 과정으로 확장시켜 설립한 센터입니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센터' 사업에 선정돼 국내 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아이디어 발굴 과정에서부터 지적재산권 관리,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을 통한 사

업화까지 전반적인 과정 모두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체와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갖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100여개의 의료기기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200여개의 의료기기 업체로 구성된 'MT 미니 클러스터', 의료기기 성능 평가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여러 기관과도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하여 총 4개의 관련 심포지엄과 17개의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선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02-2626-1964



국내 두번째 병리진단 국제표준 ISO 15189 획득

고대 구로병원 병리과(과장 김애리)는 7월 10일(월) 병리학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의료서비스 국제표준 'ISO 15189(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인정받았습니다.


ISO 15189는 메디컬시험기관에서 이뤄지는 각종 검사가 기술적 역량과 신뢰성을 갖췄음을 보장하는 국제표준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 52개국 2200개의 의료기관이 각종 검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 중인 유일한 국제 표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리학 분야와 핵의학 분야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하여 ISO 15189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조직병리진단 ▲세포병리진단 ▲분자유전학 ▲세포유전학 ▲면역병리진단 ▲특수염색 ▲부검 ▲형태계측 등 대부분류 8개 분야 246개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표준과 메디컬 시험기관의 경영시스템, 문서관리, 검사장비와 인력 등을 수개월에 걸친 서류 검토와 시술간의 실사 평가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2010년 ISO 15189 시범 인증 이후,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과

장에서 평가기준에 도달하는 시설 및 시약 관리와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을 재정비해 국제적인 수준의 업무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내 Q경영대회와 병리과 자체 정도 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검사의 질 향상과 정확성·정밀성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ISO 15189 국제 표준 인증을 계기로 진료와 연구의 기본이 되는 병리학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다국적 임상연구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병리과 김애리 교수]



▶ ISO 15189은 무엇인가요?

메디컬시험기관에서 이뤄지는 각종 검사가 기술적 역량과 신뢰성을 갖췄음을 보장하는 국제표준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52개국 2200개 의료기관이 각종 검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 중인 유일한 국제 표준입니다.

▶ 고대 구로병원 병리과는?

고대 구로병원 병리과는 1983년 개원 당시 임상병리과(현 진단검사의학과)의 한 부서로 출발한 이후 1992년 해부병리과로 분리 승격되었습니다.

병리과의 주요 업무는 환자의 조직을 확인 관찰하여 진단하는 조직병리 부분과 각각의 세포를 확인하여 진단하는 세포병리, 질병을 일으킨 세포가 발현하는 항원을 항체를 이용하여 증명하고 이를 진단하는 면역병리, 그리고 최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자생물학적 기법들을 이용하여 조직의 DNA, RNA 및 단백질을 추출하여 진단, 예후 판정, 미생물 검출 등에 응용하는 분자병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환자로부터 획득된 검체를 보관하여 미래의 연구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검체은행의 설립 운영은 타 병원의 설립 운영의 모델이 되어 많은 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환자 중심의 병원 부서를 만나다]

의료사회사업팀(병원학교)

Q1. 병원학교는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병원학교는 병원에 입원한 소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청을 통한 건강장애(소아암 및 백혈병) 또는 요보호(교통사고 및 기타 만성질환) 등록 후 병원학교 활동 참여를 통해 원격학교를 대신하여 출석관리를 진행하며, 퇴원 후 원격학교로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 병원학교의 경우 요보호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이 아니어도 입원 소아 환자들 중에서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주요 교과 5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및 예술(음악, 미술, 놀이)·특별수업(특별활동, 아이스크림홍련) 5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관 지하 2층의 병원학교에서 집단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아이들의 의료적·심리적 상태에 따라 11 개별 수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Q2. 병원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병원학교가 병원에 입원한 소아 환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병원 입원과 동시에 중단되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업 제공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병원학교 수업을 통해 출석관리를 받으며 유급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친구 관계 및 또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무료함과 무기력함을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개별 수업을 통해 부모님께도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발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원 병원학교는 자선장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진행하는 꿈키움캠프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큰 두 가지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로 연골무형성증과 같은 자선장 희

귀난치질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차이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캠프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학교 수업과 매 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마음 편히 즐기고, 배우고,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병원학교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우리 병원학교에서 2017년 6월부터 재단법인 양원에서 지원금을 받아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놀이치료는 주로 만 4세~8세 정도의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대의 아이들의 주 표현 방법인 '놀이'를 통해 대화하고, 발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회기 가장 진행한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Q4. 병원학교 운영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병원학교를 운영하며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밝아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함과 동시에 아이들은 주사를 맞고, 검사를 받으면서 공포감과 아픔을 함께 느끼곤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병원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면 표정에서 즐거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 중에서도 병원학교를 기대하기도 하고, 병원학교 참여를 위해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는 아이들에게는 일상의 즐거움이 부족하지만, 병원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변화된 표정을 발견하는 것은 힘든 것도 잊게 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만족도도 보람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병원학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간병하는 보호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기도 하고, 병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교육청 등록 아동의 경우 유급 방지까지 가능하여 보호


자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Q5.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새로운 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학교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주목적이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곳인 만큼 각 과에 병원학교에 대한 홍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병원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학생 등록 절차와 같은 내용을 각 입원병동으로 안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병원학교 기본 커리큘럼 외 다양한 외부 활동 강의를 연결하여 아이들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외부 프로그램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병원은 성인에게도 무서움을 안겨주는 장소이며, 이는 아이들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한줄 기적이 되는 장소가 병원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병원과 병원학교가 동행하며, 소아 환자들이 두려움 없이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하나의 발판이 되면 좋겠고, 병원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교직원 여러분의 환자 참여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환

수족구병 (Hand-foot-and-mouth disease)이란?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영유아가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혀, 잇몸, 뺨의 인쪽 점막과 손, 발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병원체

수족구병의 주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며, 엔테로바이러스 7형, 콕사키바이러스 5,7,9,10형, 콕사키바이러스 25형 등도 원인이 됩니다.

잠복기 3~7일

주요증상

- 전신증상: 발열, 식욕감소, 무력감
- 위장증상: 설사, 구토
- 발진/수포(물집) 혀, 볼점막, 입후두, 입천장, 잇몸 및 입술에 수포가 발생하여 궤양 형성
- 손/발에 수포성 발진 (손바닥/ 발바닥보다 손등/발등에 호발)
- 엉덩이에 비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기도 함

임상경과

2~3일 동안 증상이 심해져 아이가 잘 먹지 못하며 열이 납니다. 3~4일이 지나면 호전되어 대부분 1주일 안에 회복합니다.

수족구병을 앓았더라도 또 다시 재발 가능합니다.

신경계 합병증,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호발시기 5월~8월에 주로 유행합니다.

호발대상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환자관리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집단 발병 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환자는 등교 중지를 권장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접촉자관리

접촉자는 지속적으로 발병을 감시해야 하며 접촉 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
 -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Q&A

Q.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A 수족구병에 걸리면 가벼운 미열과 함께 혀, 잇몸, 뺨의 인쪽 점막과 발에 빨간 쌀알 크기의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이 발진은 1주일정도 지나면 호전 됩니다. 일부의 입안에만 포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족구병과 경과는 동일하며 포진성 구합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형의 경우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 영아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Q.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어떻게 감염이 되나요?

A 수족구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파됩니다. 발병 1주일간 가장 감염력이 강하고 잠복기는 약 3~7일입니다.

Q. 언제, 어디에서 주로 발생 하나요?

A 수족구는 대개 손발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족구병에 걸린 어린이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로 여름과 가을철 영·유아 또는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등 어린이가 많이 모인 곳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동일시기에 지역사회 내에서 도 발병이 증가합니다.

Q.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익히고 이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여름철 해산물 식중독 조심하세요. (비브리오패혈증)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에 대한 주의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여름, 바닷가에 놀러가서 해수욕을 하고 해산물을 먹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따뜻해진 바닷물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비브리오패혈증균도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의 온도가 18°C 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하며 8~9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상처를 통해 바닷물 속 세균이 들어오거나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먹어 감염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바닷가에 놀러갈 때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어패류를 완전히 익혀 먹는다.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껍질이 열리고 9분 이상 더 익힌다.
- 이미 조리된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는다.
- 날생선 및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횡감용 칼과 도마는 일반 칼 · 도마와 구분해서 사용한다.
- 어패류 관리 시에는 -5°C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렸을 때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간질환자(간경화, 만성간염, 간암 등)
- 알코올 중독자
- 만성질환자(당뇨병, 폐결핵, 만성신부전, 만성골수염)
-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 위장관질환: 무산증, 위궤양, 취염, 체장염, 국한성장염, 허혈성장질환 등
- 특정 약물 복용자: 부신피질호르몬제 또는 항암제 복용 중인 사람
-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 종양, 백혈병 환자 등
- 면역결핍 환자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렸을 때의 증상

상처를 통해 감염됐을 때

- 잠복기: 12시간
- 주요증상: 상처부위 부종, 홍반, 수포성 과사 등
- 특징: 신속한 치료가 없을 경우 피부, 근육, 근육 괴사

음식을 통해 감염됐을 때

- 잠복기: 2일(3시간~최대 8일)

- 주요증상: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전신 쇠약감, 설사, 하지부종, 반상 출혈, 수포, 궤양, 괴사
- 특징: 병증이 빠르게 진행, 피부 병변이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심한 통증 (주로 하지)

비브리오 패혈증은 어떠한 증상을 보이며 어떻게 진단하나요?



[글, 원제거: 이혜림 간호부 / 출처: 질병관리본부]

생생건강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신장 기능도 망가뜨린다?

식습관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고혈압'.

침묵의 살인자답게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도 무섭지만 다른 신체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높은 혈압이 장기간 유지되면 몸의 혈관 곳곳에 손상이 발생한다. 특히 신장 내 혈관 손상으로 신장혈관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면 신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신장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고혈압성 신장질환'이라고 한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모아냈다 잘 배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혈압성 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전신무력감, 식욕저하, 부종, 구역감 및 구토, 혈압의 급격한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신장기능이 점차 악화되거나 지속되면 결국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고혈압성 신장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철저한 혈압조절과 규칙적인 복약 및 저염식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적당한 운동을 통해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금연해야 하며 신장손상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도움말: 고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안신영 교수]



여름철 샌들, 무지외반증 유발한다

무지외반증은 특히 여름철에 환자 수가 많은 편이다. 엄지발가락을 조이는 샌들과 같은 여름 신발이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샌들은 족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통 굽이 얇고 평평하며 뒤축이 없어 우리 신체의 무게를 발 앞쪽 얇은 끈으로만 지탱하게 돼 앞발에 과도한 무게와 압력이 실리고 엄지발가락을 주로 압박해 발의 변형이 일어나기 쉽다.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점차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으로 바뀌고 발목과 무릎관절염, 허리디스크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초기에는 볼이 넓은 신발이나 기능성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하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진 정도가 심하거나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부위에 통증이 있을 경우, 그리고 신발 착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수술이 권유된다.

수술은 대개 틀어진 발의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절골술

로 시행된다. 양쪽 발 모두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면 환자의 상태와 수술 방법, 재활치료 등을 고려한다. 양발을 동시에 수술하거나 한 쪽씩 번갈아 시행하기도 한다. 족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슬리퍼나 샌들의 착용은 되도록 피하고 신을 신더라도 5cm 이하의 낮은 굽을 신고 발을 꼭 조이는 불편한 신발을 피해야 한다. 발가락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고 족욕과 마사지로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족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도움말: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학준 교수]



2017년 신임 임상교원 간담회 성료



고대 구로병원원장 은백린이 6월 15일(목) 오후 5시 30분 암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신임 임상교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보좌자 및 신임 임상교원 임상초빙교수 총 3명이 참석하여 첫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소개하는 훈훈한 시간들로 꾸며졌다.

은백린 병원장은 "구로병원은 1985년 착박한 구로 공단에 민족과 박애의 정신으로 뿌리내려 현재까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펼쳐나가고 있다"라며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고대 구로병원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환영사를 마쳤다.

뒤를 이어 정희진 기획실장의 '구로병원 소개와 고성범 진료협력센터장의 '진료회진', 박홍석 적정진료관리부장의 '환자안전과 진료 권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신임 임상교원 및 임상초빙교수 소개는 전통에 따라 각 과 임상 과장들이 격려의 말과 함께 신임 임상 교원들을 직접 소개하며 타과에 원활한 협력을 요청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 국내 최초 로봇수술기만 이용한 폐암 수술 성공



고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가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기만을 이용한 폐암 수술에 성공했다.

기존 폐암 로봇수술법은 보다 절개부위가 작고 수술 후 통증이 적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수술과정 중 폐혈관 및 기관지와 같은 중요부위의 절제 및 봉합은 로봇수술로는 불가능해 로봇수술 중 흉강경용 수술기구를 이용해 집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최신 개발된 특수 장비를 이용한 김현구 교수는 로봇수술을 통해 폐 조직 박리뿐만 아니라 혈관 및 기관지 절제 수술까지 단번에 시행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집도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제 25차 아시아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 ASCVTS 2017)에서 세계 50여 개국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됐다.

고대 구로병원 장기이식센터 개소



로봇수술센터, 다빈치 X 로봇수술 200례 돌파



고대 구로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문두건)는 6월 29일(목) 다빈치 X 로봇수술 200례를 넘어섰다.

지난 2015년 12월, 현존 최고 사양의 다빈치 X 로봇수술기를 도입한 이후 대장·직장, 전립선, 부인질환, 갑상선, 폐, 간담체 등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다빈치 X 로봇수술 200례를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구로병원은 90% 이상의 전립선암 생존율을 기록하는 비뇨기과, 국내 최초로 골반경 광범위전치자궁절제술을 시행한 산부인과, 세계 두 번째로 40cm 미만의 절개를 통해 싱글포트 흉강경폐암수술을 성공시킨 흉부외과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의료진의 풍부한 수술경험과 최첨단 로봇수술기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개원한 암병원과 유기적인 ONE-STOP 진료시스템을 통한 다학제진료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환자중심 로봇수술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춰 환자들의 로봇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회복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써왔다.

구로구 유일의 병무청 지정병원 선정



고대 구로병원은 7월 1일(토) 서울지방병무청과 민간의료기관 위탁 검사 협약을 체결하고 구로구 최초의 병무청 지정병원에 선정됐다.

이번에 체결한 민간의료기관 위탁 검사 협약은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신체등급판정을 위해 이뤄졌으며,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해 신체 등위 판정에 참조 가능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로병원은 병상수, 의료시설 및 장비, 의료진 현황, 교통편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구로구 최초의 병무청 지정병원에 선정됐으며, 향후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기반으로 정밀 검사 및 진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타 지역의 지정병원을 찾아야 했던 구로 지역 병역 의무자들도 보다 편리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9회 의리기기 중개임상시험 국제 심포지엄 성료



고대 구로병원 의리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이흥만)는 7월 12일(수) 오후 1시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9회 체외진단용 의리기기 국제 심포지엄(The 9th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심포지엄에는 김효명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단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경 이사장, 한국식품안전처 오현주 과장을 포함해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의리기기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 4세션 ▲체외진단용 의리기기 산업의 현주소 ▲바이오 마커와 진단 기술 ▲체외진단용 의리기기의 최신 기술 동향 ▲체외진단용 의리기기 개발 기업들과 관련 부처들이 참석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의리기기 개발을 위한 인력 및 재정 인프라 구축과 국내 체외진단용 의리기기 업체들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주제로 심도 깊은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친절한 웃음, 먼저 건네는 인사 하굿데이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은 6월 21일(수) 본관 정문에서 친절리더들과 함께하는 '하굿데이(하루종일 굿데이)' 행사를 열었다.

친절리더들은 손수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며 출근길에 직원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인사와 함께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후 병동으로 이동해 이른 시간부터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간호사, 주치의, 담담 교수진들과도 덕담을 나눴다. 또 이날은 본관 로비에서 힐링음악회를 개최하여 병원을 찾는 방문객들과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누구보다 먼저 인사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하나 되는 고대 구로병원이 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친절리더들이 주축이 되어 고대 구로병원의 병원 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한편, 2006년부터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친절리더는 2014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 핵심친절리더로 창단되어 원내 캠페인 및 친절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터, 심혈관센터 등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센터 구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대 구로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올해 간 이식 7건, 신장 이식 5건을 실시했으며, 심장 이식도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장 및 চে장의 이식 수술도 계획하고 있다.

친절을 베풀기 위한 작은 용기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절한 마음가짐, 남을 위한 배려, 상냥한 미소 등등 모두 친절을 베풀기 위해 필요한 훌륭한 미덕이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여름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 탔습니다. 혹시나 자리가 비었을까 임신부 배려석 쪽으로 가봤는데 이미 누군가 앉아 계시더군요. 그분은 분명 생물학적으로 아빠는 될 수 있어도 엄마는 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기는 민망하고 갈 길도 그리 멀지 않아서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분 앞에서 있던 어떤 여학생이 '여기 임신부가 있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앉아 있던 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양보해 주셨고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지만 괜한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더니 임신부의 당연한 권리인데 왜 민망해 하나며 의아해 하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과연 무엇에 민망했는지를 말이지요. 임신부 배려석에 앉아 있던 분의 자리를 뺏은 것 같아서 민망했는지, 아니면 학생이 제 배를 보고 저에게 임신부 배려석에 앉으라고 권하는 상황이 민망했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학생은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그런 말을 꺼내기가 민망하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서 제가 느낀 민망함 보다 그 대학생이 느꼈을 민망함을 생각하니 더욱 더 그 일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학생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그의 친절한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 느꼈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중 주요 고객인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친절하기 위해 상냥한 말투, 마음가짐, 배려심 등을 교육받고 되새기며 친절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친절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느 상황에서나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어서 제공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준비된 친절로 우리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응대를 받는 사람이 마음속 깊은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먼저 다가가는 작은 용기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친절이야말로 준비된 친절 보다 몇 배 더 가치 있는 친절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

[건강증진센터 유진 간호사]

여러분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치질

치질은 치핵, 치열, 치루 등 항문 질환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변비나 잘못된 배변 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임신 등 항문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쉽게 발생합니다.

치질 자가 테스트

아래 증상들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01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돌출이 느껴진다.</p> <input type="checkbox"/>	<p>02 과음 후 배변 시 출혈이 발생한다.</p> <input type="checkbox"/>	<p>03 항문 가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p> <input type="checkbox"/>
<p>04 배변 시 투명한 점액이 묻어나온다.</p> <input type="checkbox"/>	<p>05 항문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p> <input type="checkbox"/>	<p>06 배변 시간이 5분 이상이다.</p> <input type="checkbox"/>
<p>07 일주일에 3번 이상 변비 증상이 나타난다.</p> <input type="checkbox"/>		

치질 Q&A

Q1. 치질은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치질의 치료법은 보존요법과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치질의 정도에 따라 1~4기로 나뉘는데 치질의 상태가 심하지 않은 1~2기에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약물로도 치료 가능합니다.

Q2. 치질은 병원 검사 받아야 하나요?

치질의 대표적인 증상인 출혈은 대장암의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칭찬열차



110호 칭찬열차 주인공

간호부 윤종일

산부인과 오민정님이 간호부 윤종일님을 추천합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명랑하게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



110호 칭찬열차 주인공

72병동 조아영

내과 장성원님이 72병동 조아영님을 추천합니다.

병동에서 많은 환자분 및 보호자 분들께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도 끝까지 많은 책임을 다하십니다.

언제나 곳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시는 모습에 추천합니다. 🍎

[글: 사진 원내기자 최원의 핵의학과]



07

July 2017

웰빙강좌
02-2626-1540

당뇨강좌
02-2626-1091

ADHD부모 교육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02-2626-1230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3	4 ADHD부모 교육 (보상기법) 신관 3층 [암병원 8층 소회의실] 오전 10시	5 수요웰빙강좌 (금연) 신관 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6 당뇨교육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7
10	11 ADHD부모 교육 (말 안듣는 아이) 신관 3층 [암병원 8층 소회의실] 오전 10시	12 수요웰빙강좌 (비만과 대사증후군) 신관 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13 당뇨교육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14
17	18 ADHD부모 교육 (자기 관리가 어려운 아이) 신관 3층 [암병원 8층 소회의실] 오전 10시	19 수요웰빙강좌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신관 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20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1
24	25	26 수요웰빙강좌 (림프부종 및 암환자 건강관리) 신관 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27 당뇨교육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8
31				

08

August 2017

웰빙강좌
02-2626-1540

당뇨강좌
02-2626-1091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1	2 수요웰빙강좌 (금연) 신관 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3 당뇨교육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4
7	8	9 수요웰빙강좌 (비만과 대사증후군) 신관 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10 당뇨교육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11
14	15	16 수요웰빙강좌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신관 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17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18
21	22	23 수요웰빙강좌 (림프부종 및 암환자 건강관리) 신관 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24 당뇨교육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5
28	29	30	31	

건강한 식탁

매콤달콤 밥도둑, 갈치 무조림

7월의 제철음식은 갈치다. 갈치는 입맛이 없을 때 매콤 달콤한 양념장을 곁들여 무조림을 만들어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라이신이 함유되어 있어 아이들 성장 발육도 촉진시켜 주는 갈치, 맛있는 한 끼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재료

갈치 1마리, 무 1/4개,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양파 1/2개, 고춧가루 4큰술, 간장 5큰술, 다진마늘 2큰술, 청주 2큰술, 물엿 3큰술, 쌀뜨물 1컵

갈치 무조림 만들기

1. 갈치는 머리,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칼끝으로 비늘을 대충 벗겨 흐르는 물에 씻어 한토막씩 자릅니다.
2. 무는 겉질째 씻어 큼직하게 썰고 청고추와 홍고추는 어슷썰기 하고 양파는 적당한 두께로 썩니다.
3. 고춧가루, 간장, 다진마늘, 청주, 물엿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4. 냄비에 무를 깔고 양념장을 반만 끼얹어 그 위에 갈치를 놓고 나머지 양념장을 붓습니다.
5. 가장자리에 쌀뜨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청고추, 홍고추, 양파를 넣고 무가 익을 때까지 조리합니다.

[도움말 : 고대 구로병원 영양팀]

